

Tomorrow

원성원

나는, 과거의 추억에 파묻혀 오늘이라는 현재를 최대한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오늘이라는 시간위에 짹짹 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공상.
이것이 나에게 존재하는 가장 미래적인 짓이라 생각한다.

"Tomorrow"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내일을 향해 만들어지는 공상에 관한 이야기다.

그 공상속 주인공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가족들, 친구들, 작가들, 강아지들...

특히 할일을 찾지못한 내 머리는 자연스럽게 공상에 빠져든다.
나혼자 하는 공상이니 주인공들이 무슨 이유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을텐데
난 굳이 그런 상황의 근거와 이유를 먼저 정리해 두고 공상을 시작한다.
매번 공상을 시작할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귀찮지만 난 완전 허무맹랑한 공상은 즐기질 못한다.
아마 약간은 그 일이 한번쯤은 일어 났으면 하는 기대 때문일수도 있다.

36년의 부부생활속에 공통점이라곤 산을 좋아하는것 하나뿐인 남녀가 있다.
남편은 자신이 태어난 곳 옆에 늘 있던 북한산을
아내는 자신이 즐겨 그리던 산수화를 닮은 설악산을 좋아한다.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 다른 산속에 같이 있으나 다르게 서있다.
그들은 말한다. 서로를 쳐다보며 매달리기 보다 같은곳을 쳐다보며 평행하게 살아가는게 부부의
모습이라고...

명절때마다 마주치는 조카들은 매번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소리없는 영역싸움을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언니를 향해 동생은 예쁜 얼굴에 애교를 앞세워 스물스물
얇은 파도가 되어 언니의 자리를 먹어가고 있다.

아버지의 작은 텃밭에 들어가는 유기견들은 사람을 떠나지도 사람곁에 붙어있지도 못한채
어정쩡한 모습으로 떨고 있었다. 어느날 달동네 비슷한 마을에 갔을때 순간 사람은 한명도 보이지
않고
명랑한 똥개들이 서로의 대문을 드나들며 마실을 다니는걸 목격했다. 그들에게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 지거나 버려지기엔 그들은 너무나 당당한 존재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환경속에서 사람없이 명랑 당당한 강아지들만 난무하는 마을을 그려
보았다.

오래전, 합천 쌍백리의 한 남자는 서울에서 공부 하고픈 꿈을 위해 서울로 도망을 친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쌍백리에 남아 농사를 짓던 남자는 첫아들을 일찌감치 서울로 유학 보낸다.

아들의 몫으로 밤나무를 심고 며느리의 몫으로 흑염소를 키우던 남자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슬픔으로 술을 마신채 경운기를 몰다 사고로 죽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 종로구 한복판에 쌍백리가 생겼다. 새참을 먹고 일을 나가는 남자의 경운기

앞으로 흑염소들이 진을 친다. 버스가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칠순을 넘긴 그의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흑염소가 기특하다는듯 웃는다.

사과같이 붉은 뺨을 가진 여자와 빙어뉘시를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을 했다.그러나 남편이 먼저 유학을 떠난후

여자는 아기를 가진걸 알고 유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딸이 태어나고 엄마의 붉은 뺨을 가지고 예쁘게 자라났다 .

시간이 지나 아빠가 돌아왔을때 딸은 아빠가 낯설었다. 그리고 낯설지만 그리웠던 아빠의 세계, 얼음위로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다. 붉은 사과와 함께 자신에게 숨어있는 빙어의 모습을 찾으려...

고양 미술 스튜디오- 3기 작가들의 시간은 지나갔다.

개성있는 작가들이 1년동안 말랑말랑 서로 잘 녹아서

가족같이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잘 놀고 작업하며 살았었다.

오픈 스튜디오 3 를 끝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엔 오픈스튜디오 3 는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내 공상들의 중심엔 늘 사람들이 있다.

오래 만날수록 깊이 만날수록 그들의 일상생활은 이미지가 되어 내 머리에 박힌다.

그 이미지들이 쌓여 공상이 시작되고 그 공상이 짙어져 사진이 되었다.

그들은 사진안에서 평범한듯 독특하고 화려한듯 외롭다. 그게 삶인것 같다.

물론 그들의 의견없이 순전히 내맘대로 엮은 이미지들이지만 하나하나에 심볼을 심으며 나는 작업 내내 그들곁에 있었다.

그리고 이 공상들은 좀 오래 이어질것 같다.

너무나 흥미로운 사람들이 내주변에 바글바글하고

내 공상의 시간이 그것에 비례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